

보도시점 2024. 4. 25.(목) 17:30 배포 2024. 4. 25.(목) 16:30

고용·복지서비스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는다

- 김병환 차관,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현장 의견 수렴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 계획
- 약자복지 확대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방안도 포함 계획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16:50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 전국 102개소 운영중

김 차관은 “일 자리를 찾는 분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자복지 확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돕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며, “일선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김종완 (srandoms@korea.kr)